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225-266
<https://doi.org/10.29212/mh.2024..131.2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관련 역사적 사실 검증

장재규* | 영남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3. 역사적 사실 검증 소요
 4. 검증 결과
 5.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는 역사적 문헌에 대한 고찰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고,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실시한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보완적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검증 소요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 강뉴대대(에티오피아 파병부대)의 전사자 수,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기간과 인원 등 4가지였다.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연구 결과, 첫째,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로, 국내 문헌은 일관되게 에티오피아의 집단안보에 역사적 경험과 열정으로 참전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현실적 상황과 현실주의적 이유를 배제한 기록이다. 즉, 에티오피아는 집단안보에 대한 염원뿐 아니라 유엔에서의 에티오피아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에리트리아의 통합을 달성하고, 낙후된 군사와 경제 분야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둘째, 일부 국내 문헌은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를 253전 253승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군사적 승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는 전사자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른 기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외교적 차원에서는 122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의 파병 기간은 강뉴부대 제1진 파병부터 유엔사 연락장교단의 철수 시기인 1965년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군의 총 파병 인원으로서 기록에 등장하는 6,037명은 그것의 출처와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관련 역사적 사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에티오피아 보훈 외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에티오피아, 6·25전쟁, 강뉴대대, 역사적 사실

1. 서론

필자는 2023년 영남대학교 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¹⁾ 연수단에 포함되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에티오피아 연수단의 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용사와 그 후손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지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 보훈 차원의 공공외교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 지식으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역사를 학습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구심이 들거나 기록이 충돌하여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에티오피아 현지 방문 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에티오피아 현지의 자료와 현지인 인터뷰 등의 보완적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는 문헌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참전과 관련된 논쟁적 사실을 식별하고 문제를 제기한 연구는 1건 정도 식별하였다. 김도민은 춘천시 소재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의 전시에 관한 연구에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부대(강뉴대대)의 전사자 수와 최종 파병부대의 철수 시기가 문헌마다 다르거나 명

1)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 교류 수요를 식별하고, 이를 한국의 관련 정부 부처 및 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민간 대학 차원의 교직원 해외연수 사업으로, 2023년에는 학교 교직원 20명이 에티오피아를 6박 8일의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 그러나 그의 연구는 문제점과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쳤고, 검증을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시간적 범위는 에티오피아가 6·25전쟁 파병을 결정한 1950년부터 파병부대를 한국에서 모두 철수시킨 1965년까지이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으로 국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 정부가 발간한 6·25전쟁과 관련한 2차 사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고찰에 의존하지만, 에티오피아 현지 방문을 통해 획득한 자료와 에티오피아 현지인³⁾의 인터뷰를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후손으로 구성된 참전협회에서 제작한 2건의 문건과 참전 기념비에 기록된 내용, 기념관의 전시자료, 아디스아바바 트리니티(trinity) 성당의 기록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에티오피아인의 관점에서 제작되거나 기록되었다는 측면에서 자료가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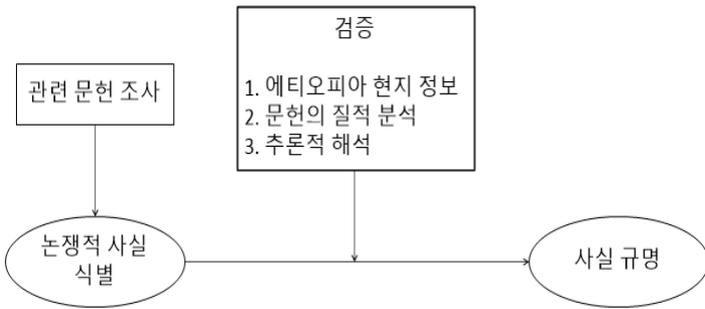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2단계의 비교적 단순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첫 번째는 검증 소요를 식별하는 단계로,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중 진위가 의심스럽거나 상호 충돌하는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2) 김도민,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전시 분석과 개선 방향」, 『강원사학』 39, 2023.

3) 에티오피아의 현대사 또는 전쟁사 전문가와 인터뷰를 성사시키려고 현지 대사관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대학(한국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위상을 가진 국립대학)을 통해 문의하였으나, 전문가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6·25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을 포함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인터뷰를 하였다.

4) 필자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공식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지 대사관의 무관을 통해 에티오피아 국방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필자가 직접 방문한 아디스아바바 대학의 도서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에티오피아의 어려운 상황(가뭄과 기아, 국경분쟁, 내전 등)으로 인해 역사에 대한 기록과 보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다. 두 번째는 검증 단계로, 식별된 논쟁적 사실들을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획득한 자료와 현지인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3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를 다루며, 4장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그림 1〉 연구의 논리

2.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가. 참전 결정과 준비

에티오피아는 역사적으로 타국의 침략을 허용한 적이 없었지만, 1935년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약 6년간 식민국가로 전락하였다. 이탈리아 침략 당시 에티오피아는 왕정 국가였고,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를 중심으로 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영국에 망명하였다. 1941년 영국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탈리아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에티오피아는 다시 자유화되었다. 에티오피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창립된 국제

연맹의 원년 회원국이었지만, 이탈리아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에티오피아의 노력에 국제연맹은 눈을 감았고, 집단안보체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1945년 국제연합이 창립될 때도 원년 회원국으로 역할을 하였고, 북한의 남침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유엔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따라 1개 대대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였다.⁵⁾

에티오피아는 파병을 결정한 후, 1950년 8월 1개 보병대대(본부중대, 4개의 보병중대로 구성⁶⁾)를 황실근위대(10개 대대로 구성)에서 파병 장병을 선발하여 편성하였고, 영국군 교관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 유사한 지형을 선정하여 약 8개월간 파병전 훈련을 하였다.⁷⁾ 그리고 1951년 4월 12일 황제는 출병식을 주관하면서 파병부대의 명칭을 강뉴(Kagnew)⁸⁾로 부여하였다.⁹⁾ 강뉴대대와 강뉴대대의 임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된 주한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I*, 1972, 218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VI*, 1977, 173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 참전편』, 1979, 403쪽; 키몬 스크르딜스(Kimon Skordiles),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 1954, 송인역 역,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 2010, 76쪽.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182쪽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19~221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3~404쪽;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76~77쪽.

8) 강뉴(Kagnew)는 2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강뉴는 에티오피아 원어로서 ‘돌파하기 어려운 물체, 또는 상대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거나 그를 궤멸시키는 것’을 뜻하며, 셀라시에의 부황인 메넬레크(Menelek) 2세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 명칭을 부여한 데서 유래한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2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4쪽) 둘째, 강뉴는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초전 박살’이라는 뜻을 갖는다.(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10쪽)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할 때, 강뉴는 에티오피아가 외침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전쟁의 역사에 등장하는 명칭이면서, 분리되지 않는 단결된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투에서 적을 격파하여 혼돈의 상황에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9)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77~78쪽.

에티오피아군 사령부¹⁰⁾는 1951년 4월 13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하여 지부티로 이동하였고, 4월 16일 미군 수송선에 탑승하여 약 20일간의 항해 끝에 5월 6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¹¹⁾ 부산항 도착과 동시에 에티오피아군은 미 8군사령부로 배속되었고, 보충대로 이동하여 미군의 전투 장비와 복장을 보급받았다. 이후 약 8주간 미군 무기와 장비의 조작법을 숙달하고, 한국의 작전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7월 6일 부산을 출발, 강뉴대대는 가평으로 이동하여 7월 15일 미 7사단 32연대에 배속되었고, 에티오피아군 사령부는 대구의 미 8군사령부로 이동하였다.¹²⁾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군 사령부와 강뉴대대 외에도 유엔군사령부에 장교 2명으로 편성한 연락반과 에티오피아 부상자 치료를 위해 간호사를 파견하였다.¹³⁾

1951년 5월에 제1진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강뉴대대는 1년 단위로 부대를 교대하였고, 6·25전쟁이 휴전 상태로 전환된 1953년 7월에는 강뉴대대 제3진이 전개된 상태였다. 6·25전쟁 기간에 파병된 강뉴대대 제1, 2, 3진의 파병 기간과 인원은 <표 1>과 같다. 제1진과 제2진은 정상적인 부대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1진의 1개 중대 규모의 후발대가 잔류하여 제2진의 현지 적응훈련을 도왔다.¹⁴⁾ 반면, 제2진과 제3진은 일정한 인수 인계 기간을 갖는 정상적 부대교대가 이루어졌다.

10) 에티오피아의 강뉴대대는 직접적인 전투를 위해 편성된 중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대대급 부대이며, 에티오피아군 사령부는 강뉴대대의 임무 수행 여건 보장과 부대 교대 등을 위해 미 8군 사령부와 협조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성된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였다.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5쪽.;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78~83쪽.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5쪽.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78~28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90쪽.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6쪽.

〈표 1〉 6·25전쟁 기간 중 에티오피아 파병 인원과 기간

부 대	참전 인원	참전 기간
에티오피아군 사령부	32명	1951. 5. 6. ~ 1952. 7. 15. ¹⁵⁾
강뉴대대 제1진	1,153명	1951. 5. 6. ~ 1952. 3. 28.
강뉴대대 제2진	1,094명	1952. 3. 29. ~ 1953. 4. 30.
강뉴대대 제3진	1,271명	1953. 4. 16. ~ 1954.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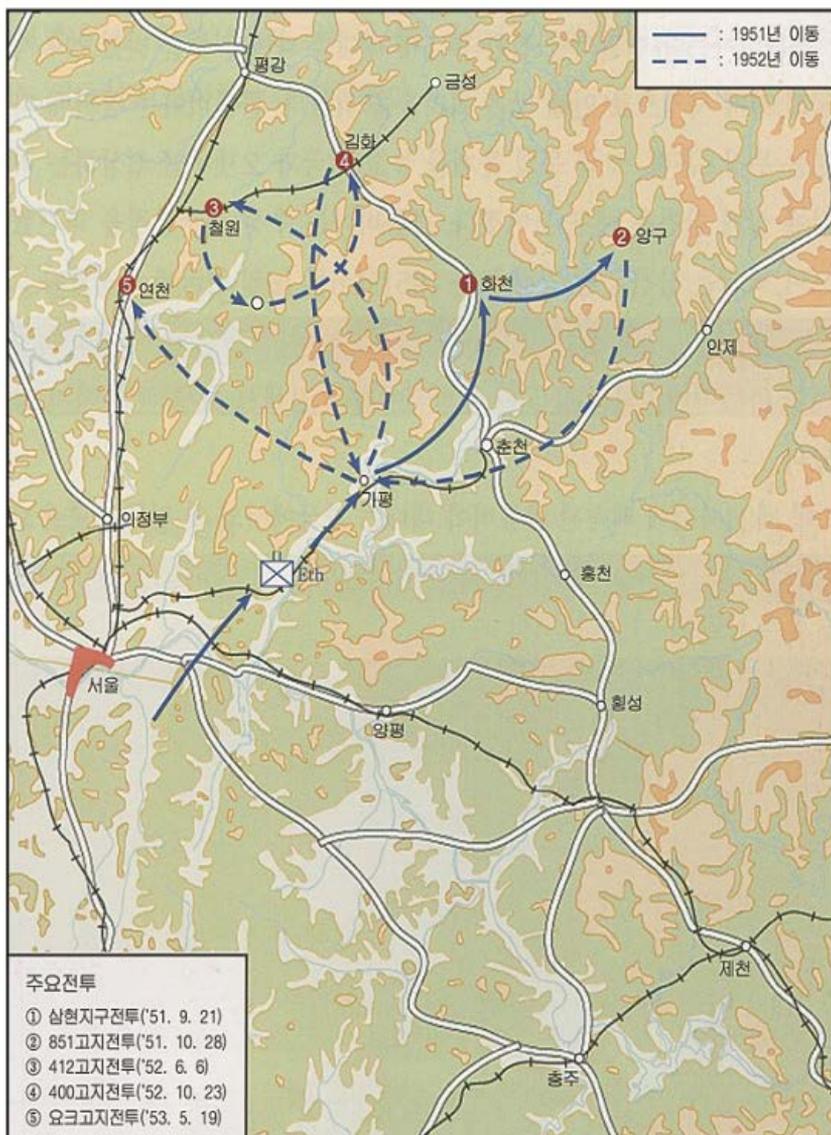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UN군』, 2015, 341, 350쪽.;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 Army), 2005, 513쪽.

나. 참전 경과

강뉴대대 제1진이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투 임무 수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인 1951년 7월의 전쟁 상황은, 유엔군 또는 공산군 어느 일방의 승리가 어려워져 전선은 교착되고, 정전 협상이 막 시작되어 소규모 전투가 주를 이루는 제한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6·25전쟁에 참전한 강뉴대대 제1, 2, 3진의 주요 전투 임무는 교착된 전선에서의 제한된 전투 행동으로, 고지쟁탈전 형태의 공격과 방어작전, 피아 주저항선 중간지역에서 이루어진 수색, 정찰, 매복 등이었다.

강뉴대대는 일시적으로 지휘관계가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미 7사단 32연대 배속하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 강뉴대대 제1, 2, 3진이 임무를 수행했던 장소와 주요 전투를 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2〉과 같다. 강뉴대대 제1진은 화천과 양구 등 한국의 중동부 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였고, 제2진은 철원, 연천 등 중부 또는 중서부 전선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3진은 연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15) 에티오피아군 사령부의 주된 역할이 유엔군사령부 또는 미 8군사령부와의 연락 임무와 강뉴대대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유엔군사령부와의 연락 임무는 에티오피아 연락단이 수행하였고, 강뉴대대의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체계가 미군(미 8군과 미 7사단) 중심으로 구축됨으로서, 그 역할이 미미하여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강뉴대대의 임무 지역과 주요 전투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381쪽.

강뉴대대 제1진이 전방으로 전개한 1951년 7월에 미 7사단은 미 9군단에 소속되어 중동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강뉴대대는 미 7사단의 좌익을 담당한 미 32연대의 예비로 화천 북방의 적근산 일대로 배치되었다(그림 2의 ①). 미 7사단은 강뉴대대의 전투력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터라 주방어진지에 배치하지 않았고, 예비로 운용하면서 수색·정찰 임무를 우선 부여하였다.¹⁶⁾ 강뉴대대의 성공적인 수색·정찰 작전은 강뉴대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미 7사단은 강뉴대대의 임무를 예비에서 전환하여 주방어진지 방어 임무를 부여하였다.¹⁷⁾ 이 당시 미 9군단은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Cleaver작전¹⁸⁾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이 작전에서 강뉴대대는 격전 끝에 부여된 공격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군단과 사단으로부터 대대의 역량을 다시금 인정받았고,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였다.¹⁹⁾ 1951년 10월, 미 8군사령부의 부대 조정 명령에 따라 미 7사단은 미 10군단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강뉴대대는 미 2사단이 격전을 벌였던 양구 북방의 단장의 능선 일대로 재배치되었고(그림 2의 ②), 그 지역에서도 수색·정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²⁰⁾ 1952년 1월 7사단의 작전지역이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강뉴대대는 편치볼(양구 해안마을) 서쪽 고지(가칠봉 남쪽)에 배치되어 수색과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고, 사단이 미 9군단으로 원복하면서 1952년 2월 가평으로 철수하였다.²¹⁾ 강뉴대대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8쪽.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14쪽.

18) cleaver 작전은 1951.9.21~9.22 2일간 수행된 제한된 공격작전으로 적의 전초기지과 수색기지를 격멸하여 아군의 주저항선 방어를 보강하고 나아가 금성 방향으로 진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19~426쪽.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27~431쪽.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2~435쪽.

제1진은 본국의 부대교대 명령에 따라 제2진의 현지 적응을 위해 1개 중대 규모의 후발대를 남기고, 3월 28일 부산항을 떠났다.²²⁾

강뉴대대 제2진도 제1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전개하였고, 제1진 본대가 출발한 하루 뒤인 3월 29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제2진의 현지 적응훈련은 제1진의 8주보다 6주가 단축된 2주간 이루어졌다.²³⁾ 1952년 4월 제2진은 가평으로 이동하여 미 7사단 32연대에 배속되었고, 임무 수행 준비를 위한 훈련에 전념하였다. 이 당시 미 7사단은 미 9군단의 예비로 있다가 군단의 가운데 사단인 미 2사단과 4월 말에 임무를 교대하였고, 제2진이 배속된 미 32연대는 사단의 좌측을 담당하였다.²⁴⁾ 제2진은 현지 훈련을 마무리하고 6월에 연대의 좌측 대대로 현 동송읍 동쪽 한탄강 일대에 배치되었고(그림 2의 ③), 수색·정찰 활동을 주로 수행하였다.²⁵⁾ 이후 미 32연대는 사단의 예비로 전환되었고, 9월 말 사단의 우측 정면을 담당하던 미 31연대와 교대함으로써 제2진은 김화 북쪽 성제산 서측 주저항선을 점령하였다(그림 2의 ④). 진지를 점령한 후 제2진은 우기로 인해 약해진 진지를 보수하고, 수색·정찰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⁶⁾ 10월 초 미 7사단에 배속되었던 미 187공정전투단의 배속이 해제됨에 따라 제2진은 미 187공정전투단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였고, 적 전초진지 공격작전과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⁷⁾ 이 당시 미 9군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6쪽.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8쪽. 제2진의 실전배치가 6월임을 고려할 때, 현지 적응훈련은 부산의 보충대 훈련보다 전방 전개 후 현지 훈련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8쪽.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9~446쪽.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47~448쪽.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48쪽.

단은 Showdown 공격작전²⁸⁾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최초 공격은 미 7사단 31연대와 국군 2사단이 함께 수행하여 삼각고지의 남단 고지와 상감령을 점령하였지만, 아군의 피해도 막심하였고, 10월 20일 미 32연대가 교체 투입됨으로써 강뉴대대도 삼각고지 일대로 재배치되어 확보한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⁹⁾ Showdown 작전이 종료되면서 작전지역이 조정되어 미 7사단은 국군 2사단에 삼각고지 일대를 인계하였고, 제2진은 성제산 일대의 최초 배치지역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미 7사단이 미 25사단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군단 예비로 전환되어 가평 일대로 철수함으로써 제2진도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³⁰⁾ 1952년 12월 말 미 7사단은 미 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고, 군단의 맨 우측을 담당하였던 미 2사단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제2진은 연천 서북부 주방어선 일부³¹⁾를 점령하였다(그림 2의 ⑤).³²⁾ 1953년 1월 말 제2진은 연대 예비로 전환되었으나, 소규모 부대의 수색·정찰 작전은 지속하였다.³³⁾ 이후 2월 말 미 32연대가 사단 예비로 전환되면서 대대의 전투작전은 3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3월 말 사단의 명령에 따라 미 32연대가 미 17연대 작전지역을 인수함으로써 대대는 연대의 중앙대대로서 야월산³⁴⁾ 북쪽 주저항선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³⁵⁾ 4월 16일 사단 예비로 전환되어 부대교대와

28) 1952년 10.14~10.25 이루어진 작전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오성산을 중심으로 한 적의 위협을 약화하기 위해 계용산 북방의 주요 고지군(삼각고지)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된 공격작전이다.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50~454쪽.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54~458쪽.

31) 이 지역은 임진강 서안으로서 현재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다.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59쪽.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3쪽.

34) 현 행정구역으로 철원군에 속하고, 백마고지의 서쪽에 있다.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4쪽.

귀국을 준비하였고, 4월 25일 제3진과 부대교대식을 한 후 4월 30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³⁶⁾

강뉴대대 제3진의 파병 준비와 한국으로의 이동은 제1, 2진과 유사하였지만, 제1진의 파병 복귀가 제3진의 파병준비 훈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강뉴대대 제1진이 한국에서 사용하였던 미군의 장비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였기 때문에 제1, 2진보다는 효과적인 파병 준비훈련이 이루어졌다.³⁷⁾ 이로 인해 1953년 4월 16일 부산항에 도착한 제3진은 3일간의 짧은 현지 적응훈련을 하였다.³⁸⁾ 제2진과 교대식을 가진 후 약 2주간의 현지 훈련을 미 32연대의 통제하에 수행하였고, 5월 11일 미 32연대 3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연천 대광리 서북쪽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³⁹⁾ 제3진은 6월 30일까지 Yoke-Uncle고지 방어전⁴⁰⁾을 포함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7월 1일 연대 예비로 전환되었다.⁴¹⁾ 이후 7월 15일 제3진은 미 17연대 3대대 작전지역을 인수하였고,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수색·정찰 활동을 지속하였다.⁴²⁾ 정전협정 후 제3진은 미 7사단에 배속되어 경계 작전과 훈련 등의 활동을 하였고, 제4진과 교대 후 1954년 7월 10일 한국에서 철수하였다.⁴³⁾

강뉴대대 제1, 2, 3진은 6·25전쟁 중후반 교착기 약 2년간 한국에 파병되어 중동부 및 중부 전선에서 미 7사단 32연대에 배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7쪽.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8쪽.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8쪽.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9쪽.

40) 1953. 5.19~20 이루어진 작전으로, 강뉴대대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인 Yoke고지와 Uncle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9~486쪽.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87~489쪽.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8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14, 382쪽.

속되어 공격, 방어, 수색, 정찰, 매복 등 대소 253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전 기간 중 강뉴대대는 전사자 121명(또는 122명), 부상자 536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대부분 전투(또는 모든 전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었고, 적에게 포로로 잡힌 인원이 한 명도 없는 놀라운 전과를 만들었다.⁴⁴⁾

3. 역사적 사실 검증 소요

에티오피아군의 6·25전쟁 참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 중 검증이 요구되는 것은, 진위에 의심이 드는 기록과 문헌마다 내용이 달라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식별된 검증 소요는 4가지이며, 이 중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와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등 2가지는 진위에 의심이 가는 역사적 사실이며,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와 파병 기간과 인원 등 2가지는 문헌의 기록들이 충돌한다. 4가지의 논쟁적 역사 기록은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 6·25전쟁 참전 동기

에티오피아군의 6·25전쟁 참전 동기는 <표 2>와 같이 대부분 기록에서는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과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집단안보에 대한 강한 신념과 열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국제정치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으로, 셀라시에 황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제적 집단안보 체제 형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90쪽.

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안보 추구는 역사적으로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점령도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가 자유주의적 접근에만 기초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는 설명은 합리적 의심을 만든다. 또한, 6·25전쟁 후 미국과 에티오피아가 상호 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한 사실이나⁴⁵⁾, 유엔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파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록⁴⁶⁾ 등은 에티오피아의 참전이 현실주의적 국가 이익도 함께 고려되었음을 암시한다.

〈표 2〉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

문헌 또는 출처	내용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2)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 ⁴⁷⁾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7)	에티오피아 황제의 집단안보에 대한 신념과 열정 ⁴⁸⁾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참전편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과 황제의 신념과 열정 ⁴⁹⁾
UN군지원사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 ⁵⁰⁾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과 황제의 신념과 열정 ⁵¹⁾
통계로 본 6·25전쟁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 ⁵²⁾
6·25전쟁과 유엔군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 ⁵³⁾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17쪽.

46)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394쪽.; James F. SchnabelRobert J. Walson,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서 한국전쟁(상)』, 1990, 133쪽.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의 참전 동기는 입체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즉,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집단안보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만 전투부대를 한국에 파병하였는가? 아니면, 현실적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인가?

나.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강뉴대대는 253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1972년 국방부에서 영문으로 발간한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에서 제시된⁵⁴⁾ 이후 다른 문헌에서도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53회의 전투는 대대·중대급 규모의 공격 및 방어작전뿐 아니라, 분·소대급의 정찰, 매복, 수색 등의 소규모 작전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문헌에서는 강뉴대대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장병들의 용맹함과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강뉴대대가 수행한 253회의 전투 결과에 대해서는 ‘탁월한 성취’, ‘대부분 성공적 임무수행’, ‘253전 무패’, ‘253전 253승’ 등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4년 발간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18쪽.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7, 173쪽.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3쪽.

50)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998, 394쪽.

51) 키몬 스코르딜스, 앞의 책, 2010, 52~68쪽.

52)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78쪽.

53)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5, 339쪽.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80쪽. 강뉴대대는 약 2년간의 참전 기간 중 현지 적응 훈련과 전방 전개 등의 전투 준비 시간을 제외하면, 약 8~9개월 기간 동안 전투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소수의 공격과 방어작전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작전은 수색과 정찰, 매복 등 소규모 부대의 단기작전이었다. 따라서 253회의 전투는 이러한 소규모의 전투를 모두 포함하는 총괄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된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253전 253승’에 가깝게 평가하였다.

“진지를 지킴에 있어서 열정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신중하게 공격함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여 항상 완벽하게 목적을 수행했다. 그래서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한번 장악한 땅은 한 뼘도 다시 빼앗기지 않았으며 작전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⁵⁵⁾

반면, 1972년 발간된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는 용맹하고 탁월한 성취(the bravery and outstanding achievement)로 표현하였고,⁵⁶⁾ 1977년 발간한 동일 제목의 문헌과 1979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참전편』, 1998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UN군지원사』는 전투 결과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문헌들의 내용에서는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가 대부분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10년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를 번역 발간한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는 ‘253전 253승’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⁵⁷⁾ 또한, 201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과 유엔군』은 강뉴대대가 250여 차례에 달하는 전투를 수행하여 대부분 승리하는 전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⁵⁸⁾ 202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국방일보가 함께 발간한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에서는 ‘253전 253

55) 키몬 스코르딜스, 앞의 책, 2010, 29쪽. 이 책은 2010년에 번역되어 발간되었으나, 원서는 1954년에 발행되었다.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81쪽.

57) 키몬 스코르딜스, 앞의 책, 2010, 11쪽.

5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5, 340쪽.;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 국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2012, 51~53쪽.

승 불패 신화'라는 표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⁵⁹⁾ 문헌들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에 대한 기록

문헌	내용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 (키몬 스코르딜스, 1954)	항상 완벽하게 목적 수행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2)	탁월한 성취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송인엽, 2010)	253전 253승
6·25전쟁과 유엔군(2015)	대부분 승리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2023)	253전 253승, 무패 신화

따라서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강뉴대대는 정말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것인가? 아니면 확대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

다.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는 문헌과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인엽 역의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부록의 전사자 명단에는 124명의 전사자 명단이 등장한다.⁶⁰⁾ 그러나 1972년, 1977년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1979년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참전편』, 1998년 『UN군지원사』에는 전사자가 121명으로 명시되어 있다.⁶¹⁾ 반면, 2014년 『통계로 본 6·25전쟁』, 2015

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일보,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 2023, 18쪽.

60) 키몬 스코르딜스, 앞의 책, 2010, 300~301쪽.

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8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년 『6·25전쟁과 유엔군』, 2023년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에는 전사/사망자로 122명을 기록하고 있다.⁶²⁾ 과거 기록과 비교할 때, 이 기록은 전사자는 121명이고 사망자가 1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출처로,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⁶³⁾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명비는 12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⁶⁴⁾ 춘천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는 전사자를 121명으로, 전시실의 추모 비석에는 122명으로 기록하고 있다.⁶⁵⁾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에티오피아 6·25전쟁 전사자

문헌 또는 출처	기록
에티오피아 전사자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2010)	124명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1968 건립)	121명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2, 1977)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참전편(1978)	
UN군지원사(1998)	

1977, 19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92쪽.;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998, 402쪽.

62)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82쪽.;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5, 350쪽.;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국방일보, 앞의 책, 2023, 18쪽. 앞의 문헌들은 전사자와 사망자를 각각 구분하지 않았다.

63) 재한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에티오피아), https://www.unmck.or.kr/kor/04_memory/?mcode=0404040000&mode=1&nation=ETHIOPIA&page=5(검색일: 2024.1.26.)

64)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https://blog.naver.com/blass46/222140117336>(검색일: 2024.1.26.)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전사자 명비를 찍은 사진을 올린 블로그를 참고하였다.

65)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12~13쪽.

통계로 본 6·25전쟁(2014)	122명 (전사/사망)
6·25전쟁과 유엔군(2015)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2023)	
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	122명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추모비석(2007)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따라서 6·25전쟁 참전한 에티오피아군의 전사자 숫자는 검증이 필요하다. 전사자는 121명인가? 122명인가? 아니면 124명인가?

라.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기간과 인원

에티오피아군의 한국 파병 기간과 인원에 관한 기록은 문헌마다 차이가 있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기간은 에티오피아군이 한국에 최초 전개한 시점부터 최종 철수한 시점까지이며, 파병 인원은 한국으로 전개한 총인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병 기간과 인원은 전쟁 기간뿐 아니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기간과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된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2년, 1977년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2014년 『통계로 본 6·25전쟁』은 파병 인원에 대한 기록은 없고, 파병 기간은 1965년 1월 3일로 기록하였다.⁶⁶⁾ 2010년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는 파병 인원을 6,037명으로 명시하였고, 파병 기간은 강뉴대대 제5진의 철수한 시점인 1956년 4월로 기록하였다.⁶⁷⁾ 2015년 『6·25전쟁과 유엔군』은 철수 시점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8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7, 190쪽.;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80, 382쪽.

을 1965년 3월 3일로 기록하였고, 1955년 6월 28일 전개한 강뉴부대 제5진이 최종 철수 시점까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명시하였다.⁶⁸⁾ 다른 출처로는, 춘천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의 자료는 총 파병 인원을 1954년 12월 기준으로 6,037명으로 기록하였고, 파병 종료를 1965년 3월 1일로 명시하였다.⁶⁹⁾ 또한, 유엔군사령부 홈페이지에서는 에티오피아 부대가 1965년 1월에 최종적으로 철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⁷⁰⁾ 2012년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는 파병 기간을 1965년까지로 명시하였고, 강뉴부대 제5진의 철수는 1956년 3월로 기록하였다.⁷¹⁾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67) 키몬 스크르달스, 앞의 책, 2010, 9쪽.

6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5, 445쪽.;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2013, 84쪽.

69)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9쪽.

70) 유엔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unc.mil/History/Post-1953-Evolution-of-UNC/>(검색일: 2024.1.26.)

71) 국가보훈처, 앞의 책, 2012, 170쪽.

〈표 5〉 에티오피아군 파병 인원과 기간

문헌 또는 출처	파병 인원	철수 시점(부대)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2)	.	.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7)	.	1965.1.3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2007)	6,037명	1965.3.1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2010)		1956.4(제5진)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2012)	.	1965
통계로 본 6·25전쟁(2014)	.	1965.1.3
6·25전쟁과 유엔군(2015)	.	1965.3.3.(제5진)
유엔군사령부 홈페이지	.	1965.1

파병 인원이 2개의 문헌 또는 출처에서 6,037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숫자의 도출 논리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강뉴부대 또는 에티오피아군의 최종 철수 시점이 문헌마다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4. 검증 결과

가. 6·25전쟁 참전 동기

6·25전쟁이 발발한 당시의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정규군으로 10개 보병대대의 황실근위대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1개 보병대대를 차출하여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의 한국으로 파병하

는 것은 매우 이례적 국가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문헌들은 이러한 정책적 결정이 에티오피아 황제의 집단안보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만 설명하였다. 반면, 필자가 직접 방문한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전시실의 참전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아래의 문구와 같이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 또는 당시 황제의 특별한 신념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1950년 7월 14일 UN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에 지지를 표시한 53개 회원국 정부에 지상군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포괄적인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전쟁에 파병을 지원한 국가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에티오피아도 이들 중 하나였다.⁷²⁾

당시 에티오피아의 국내 상황과 국제정세는 비교적 복잡하였다. 이탈리아의 침공과 식민 통치를 당한 에티오피아는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일부인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군정을 함으로써 에티오피아의 에리트레아 통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석유 매장지로 평가되었던 에티오피아의 오가덴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서 양국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을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로 간주하였고, 미국

72)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전시실의 참전 배경은 영문과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병기된 영문 표현은 다음과 같다. On July 14, 1950, UN Secretary General disclosed a comprehensive message that asked 53 member states which supported the UN Resolution for additional supply of ground forces. This brought a significant increase in countries that sent forces to the Korean War, and Ethiopian was one of them.

역시 아프리카에 미국을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여 양국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1945년 에티오피아 셀라시에 황제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회담에서 에티오피아 황제가 높은 관심을 드러낸 아래의 4가지 사항은 당시 에티오피아가 무엇을 국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① 유엔 현장 초안 작성에 역할을 하고 추축국과의 평화 문제에 참여 ② 영국의 오가덴 반환과 에티오피아와 지부티 간 철도에 대한 통제력 증진을 위한 프랑스의 양보 ③ 무기, 운송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긴급한 필요성 ④ 에티오피아의 바다로의 안전한 접근(에리트레아의 반환)⁷³⁾

에티오피아 황제는 에티오피아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지도자이면서, 이탈리아의 침공에 대응하여 직접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을 호소하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등 외교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4가지 국가 이익은 국제사회(유엔)와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다. 비밀이 해제된 미 국무부의 문서에 의하면,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는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1개 보병대대의 파병을 미국에 제안하면서 에티오피아군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함께 요청하였다고 한다.⁷⁴⁾ 미국이

73) Paul B. Henze, *The United States and the Horn of Africa: History and Current Challenge*, RAND Note, 1990, 8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Ethiopia's desire to play a role in drafting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participate in the peace conferences with Axis powers; ② return of the Ogaden by Britain and concessions by France that would give Ethiopia greater control over the railway from Djibouti; ③ Ethiopia's urgent needs for arms,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last but not least ④ Ethiopia's need for secure access to the sea, which meant return of Eritrea.

74) U.S. DCS Office of Historian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the*

이를 수용하여 1953년 양국은 상호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에티오피아는 미국의 군사고문단 지원으로 10개 대대 규모의 황실근위대를 1956년까지 3개 사단 규모의 정규군으로 현대화하였다.⁷⁵⁾ 미국의 경제원조 규모도 6·25전쟁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⁷⁶⁾ 또한, 에티오피아의 최대 관심사였던 에리트레아 통합은 1950년 말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제안되었고, 1952년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연방이 창설됨으로써 에리트레아 통합을 위한 에티오피아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얻었다.⁷⁷⁾ 에티오피아 정부의 중요 직위자의 자서전과 증언에 따르면,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의 6·25전쟁 전투부대 파병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에리트레아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⁷⁸⁾

국내 문헌, 에티오피아 현지 자료, 미국-에티오피아 외교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은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과 셀라시에 황제의 집단안보에 대한 강한 신념과 열정이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강뉴대대의 출정식에서 한 황제의 훈시 내용을

near east and Africa, volume V, Policy Statement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March 1, 195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1v05/d698> (검색일: 2024.1.26.)

75) Paul B. Henze, 앞의 책, 1990, 12쪽.; wikipedia, Ethiopian National Defense Force, https://en.wikipedia.org/wiki/Ethiopian_National_Defense_Force(검색일: 2024.1.27.)

76) Paul B. Henze, 앞의 책, 1990, 11쪽.

77) Paul B. Henze, 앞의 책, 1990, 11쪽.

78) Neha Banka(June 26, 2020), “70 years of the Korean War: Why Ethiopia jumped into a distant war and remained unvanquished”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research/70-years-of-korean-war-why-ethiopia-jumped-into-a-distant-war-and-remained-unvanquished-6473991/>(검색일: 2024.1.27.)

보면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⁷⁹⁾ 나아가 이것은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고 파병 장병에게 참전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참전 동기의 한쪽 면만을 설명한 것이고, 에티오피아의 실질적인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참전의 다른 면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는 집단안보에 대한 염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유엔(국제사회)에서 에티오피아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통합을 촉진하고 낙후된 에티오피아의 군사 및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함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79)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29쪽.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안보라는 이 신성한 세계정책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귀 장병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나.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6·25전쟁 기간 에티오피아의 강뉴대대는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였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모든 문헌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 등장하는 253전 253승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승리는 사전적으로 상대에게 이김을 말하며, 군사적으로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적을 격멸하거나 격퇴하여 아군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군사적 승리는 성공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승리의 기준이 적의 격멸이니 격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략적 또는 전술적 목적 달성이 승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전략적 수준에서는 비록 군사적 작전과 전투에서 패배할지라도 전략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면 승리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는 결국 패배하였지만, 시나이반도를 반환받아 전략적으로는 성공한 사례⁸⁰⁾나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미국과의 개별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베트남 통일에 성공한 사례⁸¹⁾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전술적 수준의 승리는 사상자의 수, 포로의 수, 확보한 지역 등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수량화가 가능한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⁸²⁾ 그러나 전술적 승리도 개별 작전과 전투의 목적 달성이 승리의 기준이 된다. 작전과 전투에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단위 작전과 전투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을 아군이 원하는 장소

80) Bartholomees, J. Boone, "Theory of Victory" *Parameters*, summer 2008, 30쪽.

81) Bartholomees, J. Boone, 앞의 논문, 2008, 27쪽.

82) Bartholomees, J. Boone, 앞의 논문, 2008, 27쪽.

에서 격멸하기 위해서는 적의 위치와 약점을 찾기 위한 수색 및 정찰 활동, 적을 유인하기 위해 고의로 철수하는 활동, 공중기동으로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활동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부대는 요구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승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를 253전 253승으로 기록한 문헌은 승리의 기준을 적의 격멸이 아닌 작전의 성공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강뉴대대의 253회 전투는 공격, 방어, 수색, 매복, 정찰 등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강뉴대대가 모든 공격작전 시 공격 목표를 확보하였고, 모든 방어작전 시 방어진지를 고수하였으며, 모든 수색, 매복, 정찰 활동 시 그것의 작전목적을 달성하였다면, 253전 253승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강뉴대대의 전투기록을 보면,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전투 사례가 존재한다.

<사례 #1> 1951년 9월 12일 소부대 공격 전투

“강뉴대대는 소대 병력을 차출해 적의 주방어선 근처에 있는 악마 고지를 공격하여 적군을 사살하고 점령하는 명령을 받았다. 테파라 중대장은 ~~~. 이읍 소대장이 밤이 이슬하여 적의 진지로 출동한 후 2시간 만에 적과 조우했다. 중공군도 ~. 에티오피아군과 중공군의 치열한 접전 끝에 ~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고지 뒷면에 숨어 있던 중공군이 ~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수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던 중공군 ~ 포위하여 섬멸하려는 것이었다. 치열한 공방전 중에 ~. 적은 에티오피아군을 ~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레마 병사가 ~ 모두 생환했다. 퇴로를 만든 레마 병사만 제외하고.”⁸³⁾

83)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97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17~418쪽

<사례 #2> 1952년 7월 24일 소부대 공격 전투

“티라이에 중위는 철통 요새로 알려진 적의 358고지를 공격해 점령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저녁 10시 반 부대를 출발해 적진으로 향했다. 358고지에 소리 없이 오르자 ~ 포탄을 퍼부었다. 그러나 티라이에 중위와 대원들은 ~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들을 밀어붙이던 티라이에 중위와 선임하사가 동시에 쓰러졌다. 지휘자를 잃은 ~ 베르하누 상병의 지휘하에 ~ 각개전투를 벌였다. 전사들은 무서운 투혼으로 밤새 싸워 적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힌 후 사망한 전우의 시체를 수습하고 부상자를 부축해~ 인근 은신처로 이동했다. 그들은 계속된 적의 박격포와 자주포의 포탄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본진에 귀환했다.”⁸⁴⁾

사례 #1과 #2는 강뉴대대 장병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준다. 소부대 공격 전투를 수행한 강뉴대대 작전부대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용맹함과 단결력으로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부대 복귀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부대 복귀를 두 전투 사례에서 승리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사례 #1의 이윤 소대장과 사례 #2의 티라이에 중위에게 부여된 임무는 지정된 목표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전투 사례는 실패한 작전이라고 가혹하게 평가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승리한 전투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를 253전 253승으로 기록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승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승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뉴대대의 놀라운 전투 결과를 가장 자랑스러워할

84)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130~131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45~446쪽

당사자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와 후손들이 제작한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음도 참고되어야 할 근거라고 할 수 있다.⁸⁵⁾ 따라서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는 253전 253승이 아닌, 대부분 전투에서 임무 달성(승리)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

국내 문헌과 출처는 강뉴대대의 전사자를 124명, 122명, 12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필자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아디스아바바 한국전쟁 참전공원에 건립된 참전 기념탑에는 <그림 3>의 사진 자료와 같이 전사자를 122명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1968년 춘천에 세워진 동일 형태의 기념탑 기록(전사자 122명)과 다른 내용이다. 게다가 현지의 기념탑 앞에는 122개의 추모석이 놓여 있어 전사자별로 추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3〉 기념탑과 추모석

85)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후손으로 구성된 참전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 전시된 자료, 참전 협회에서 제작한 2건의 문서가 있다.

둘째, 기념탑에 인접해 있는 강뉴부대 박물관(참전기념관) 전시실의 전사자 현황에는 <그림 4>의 사진 자료와 같이 122명의 전사자 얼굴, 이름, 군번이 제시되어 있었고, 참전상황을 설명하는 전시자료에도 전사자는 122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정된 흔적이 있어서 최초 만들어진 전시자료에는 다른 숫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⁸⁶⁾ 또한,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협회가 제작한 유인물에도 전사자는 122명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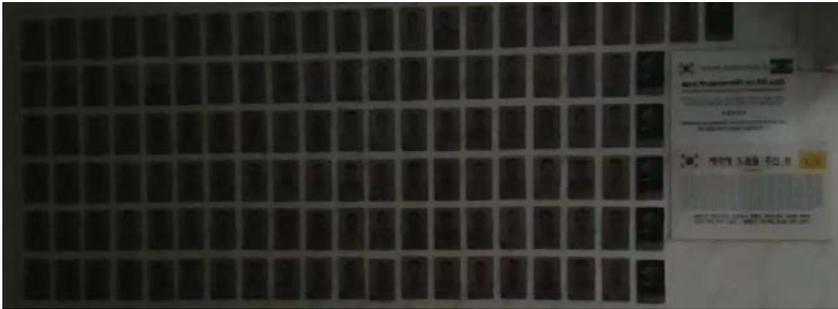


<그림 4> 박물관의 전사자 현황, 전시자료, 유인물 내용

셋째, 아디스아바바의 트리니티 성당에는 에티오피아의 황제와 총리를 포함한 주요 인사의 시신이 안장된 장소이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6·25전쟁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에티오피아 장병들의 시신도 함께 있다. 필자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시

86) 박물관 내부의 전시자료는 대부분 한국에서 제작되어 이곳으로 이동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최초 전시자료는 한국 춘천의 참전기념관 전시자료와 같은 내용의 121명 전사자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에 트리니티 성당은 전사자가 위치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현장 확인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지 무관이 그전에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전사자의 숫자를 점검할 수 있었다. 성당 지하의 공간에 보관된 전사자의 시신 수는 모두 122구였으며, 이를 나타내는 현황이 <그림 5>의 사진 자료와 같이 지하 시설 한쪽 벽면에 기록되어 있다.⁸⁷⁾ 이처럼 현지에서 확인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에티오피아는 6·25전쟁의 전사자를 122명으로 통일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트리니티 성당 지하의 전사자 명부

한국의 문헌 자료와 에티오피아 현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은 전사자를 121명으로, 에티오피아는 122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4년 이후의 한국 문헌에서 122명의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전사 또는 사망자로 표시하여 여전히 전사자는 121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⁸⁾ 결

87) <그림 5>는 현지 무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캡처한 것이다. 지하 공간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서 동영상이 전반적으로 어둡게 촬영되었다.

88) 다만, 춘천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은 전사자에 대한 기록을 121명과 122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국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6·25전쟁에서 121명의 전사자는 공동으로 인정하지만, 한 명에 대해서는 한국은 사망자로 간주하고, 에티오피아는 전사자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한 명의 사망자는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⁸⁹⁾

여기서 전사자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의 정의에 따르면, 전사자(KIA, killed in action)는 전투에서 사망한 인원을 말하며, 전투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자(DOW, died of wounds)와 구분한다. 반면, NATO에서는 전투에서 얻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자도 전사자에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 문헌의 전사자 집계는 미 국방부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에티오피아는 NATO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사자 124명의 기록은 전투가 아닌 이유로 사망한 자(비전투 손실)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사자를 121명 또는 122명으로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적용기준의 차이이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교적 차원에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티오피아 외교 관계에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은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며, 에티오피아군의 전사자 수는 전쟁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사실이므로 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에티오피아가 122명의 전사자 시신을 트리니티 성당 지하 공간에 안치하고 있고, 한국의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와 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에도 전사자를 122명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사자의 수는 122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89)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14쪽.

라.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인원과 기간

에티오피아군 파병 인원 6,037명은 6·25전쟁 참전 인원 3,518명과 구분되는 숫자이다. 이 숫자에는 3,518명 외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에 지속 주둔한 에티오피아군의 숫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6,037은 직접적인 전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에티오피아의 기여를 총체적으로 나타낼 때 필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숫자는 한국-에티오피아 간 외교적 행사에 자주 등장한다.

필자는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6,037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집계된 것인지 그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협회가 제작한 유인물⁹⁰⁾에도 전체 숫자만 제시되어 있었고, 그 숫자의 도출 경위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참전협회 담당자는 적절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또한, 필자가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대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총 파병 인원은 총 파병 기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파병 기간이 길수록 파병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문헌에서는 파병 기간을 1956년 또는 1965년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현지에서 확인한 정보는 에티오피아의 파병 기간은 1956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기록은 참전협회의 유인물 자료로서, 자료에는 1956년까지 5년간

90) 유인물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엔 헌장에 따라 6,037명의 에티오피아 군인이 1951년부터 1956년까지 5년간 파견되었다. 강능대대 제1, 2, 3진은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였고, 강능대대 제4진과 제5진 강능중대는 정전협정 후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파병하였고, 총 파병 인원이 6,037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기록은 기념관 전시실의 파병부대 지휘관 현황으로, 이 자료도 파병 기간을 제5진, 1956년까지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자료 모두 강뉴대대는 제1진부터 제4진까지는 대대급 규모였고, 마지막 제5진은 중대급 부대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현지 기록의 문제는 제1진부터 제5진까지의 인원을 합했을 때, 전체 인원이 6,037명으로 집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록상 제3진까지의 인원이 3,518명이고, 제4진은 1,270명이며, 제1진과 파병되었다가 1952년에 철수한 에티오피아군 사령부 인원 35명을 합하면, 총 4,823명이다. 따라서 제5진까지의 총 파병 인원이 6,037명이 되려면 제5진의 파병 인원은 1,214명이 되어야 하지만, 중대급 규모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파병 인원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제5진 강뉴중대의 병력 현황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확인한 정보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강뉴부대의 파병은 1956년까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강뉴부대의 총 파병 인원은 6,037명보다 작다고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군의 한반도 파병은 강뉴부대 파병과 강뉴부대 철수 후 잔류한 인원을 포함한 파병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현지 한국전쟁 참전협회는 강뉴부대 파병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뉴부대뿐 아니라 유엔사 연락반과 간호사들도 함께 파견하였고, 유엔사 연락반 요원은 1965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 국내 언론은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철수를 보도하였고, 1960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뉴부대 철수

후에도 에티오피아 연락반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¹⁾ 따라서 1965년 에티오피아군의 최종 철수는 연락반 철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의하면, 연락반 철수는 1975년에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존재하므로,⁹²⁾ 이 문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문헌 정보, 에티오피아 현지 정보, 국내 언론 정보, 정부의 외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티오피아의 강뉴부대는 1956년까지 5년 동안 제1진부터 제5진까지 약 5,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강뉴부대 철수 이후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하지만, 1965년까지 파견한 인원과 1975년까지 파견한 인원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1975년까지 유엔사 연락반 요원은 지속 파견되었으나, 1965년까지는 별도의 소규모 부대가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6,037명의 숫자는 강뉴부대를 포함하여 정전협정 이후에 파견된 모든 에티오피아군을 포함한 숫자임이 분명하다. 에티오피아군의 총 파병 인원과 기간에 관한 사실은 위의 정리처럼 불분명한 부분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검증이 필요하다.

91)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11쪽.; 조선일보, 1956년 7월 13일. “에티오피아 부대 약 1개 대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경향신문, 1960년 7월 24일, “유엔군사령부 휘하에는 한국, 미국, 토이키(터키_인용자), 태국군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도 전란 때 유엔군의 일익을 맡았던 영국, 불란서, 에티오피아, 희랍, 호주, 뉴질랜드 및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사령부에 각각 연락장교단을 파견하고 있다”

92)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12쪽.; 외교사료관, 「주한UNC(유엔군사령부)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 철수 문제」, 생산년도 1975, 생산과 동부아프리카, 분류 729.54, 공개년도 2006, 등록번호 8356. “1975년 6월 14일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된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은 최종 철수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에티오피아 현지 방문과 자료 수집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를 통해 식별한 검증 소요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기간과 인원 등 4가지였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며, 현실주의적 관점을 포함하는 설명이 바람직하다. 즉,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는 집단안보에 대한 염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유엔(국제사회)에서 에티오피아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통합을 촉진하고 낙후된 에티오피아의 군사 및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함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를 253전 253승으로 기록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승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그것의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강뉴대대의 전투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6·25전쟁에서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는 ‘253전 253승’이 아닌, ‘대부분 전투에서 임무 달성(승리)’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는 전사자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따라 121명 또는 122명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사자 수는 외교적 차원에서 122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가 전사자

수를 122명으로 공식화하였고, 한국의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와 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에 에티오피아의 전사자를 122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에티오피아의 파병 기간과 인원 에 대한 검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4가지 검증 소요에 대한 해답을 현지 방문과 현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필자를 이를 위해 한국 전쟁 참전협회가 운영하는 기념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하고 현지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 대학 등 현지 교육 기관을 방문하였다. 또한, 현지 한국 대사관과 KOICA 등 한국의 정부 조직을 방문하였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민간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결국 검증 소요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 필자의 자료 수집 활동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빈곤과 내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에도 이유가 있었다. 향후 에티오피아의 내정이 안정되고,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에티오피아의 6·25 전쟁 참전 역사를 연구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후속하여 향후 연구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에 관한 한-에티오피아 공동 연구, 그리고 강뉴대대의 놀라운 전투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전자는 군사사적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보훈 외교적 차원에서도 함의를 가질 수 있고, 후자는 한국군의 정신전력 연구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201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 참전편』, 197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I, 197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VI, 197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199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UN군』, 201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일보,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 2023.
- 김도민,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전시 분석과 개선 방향」, 『강원사학』 39(2023) DOI:http://dx.doi.org/10.31097/KHR.2022.39.01
- 키몬 스코드딜스(Kimon Skordiles),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 1954, 송인역 역,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 2010.
- Bartholomees, J. Boone, “Theory of Victory” Parameters, summer 2008.
- James F. Schnabel·Robert J. Wal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Staff, 1978,
- Paul B. Henze, The United States and the Horn of Africa: History and Current Challenge, RAND Note, 1990.
-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2013.
-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 Army), 2005.
- 경향신문, 1960년 7월 24일
- 조선일보, 1956년 7월 13일

외교사료관, “65378;주한UNC(유엔군사령부)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 철수 문제”, 생산년도 1975, 생산과 동부아프리카, 분류 729.54, 공개년도 2006, 등록번호 8356.

재한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에티오피아), https://www.unmck.or.kr/kor/04_memory/?mcode=0404040000&mode=1&nation=ETHIOPIA&page=5 (검색일: 2024.1.26.)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https://blog.naver.com/blass46/222140117336> (검색일: 2024.1.26.)

Neha Banka(June 26, 2020), “70 years of the Korean War: Why Ethiopia jumped into a distant war and remained unvanquished”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research/70-years-of-korean-war-why-ethiopia-jumped-into-a-distant-war-and-remained-unvanquished-6473991/>(검색일: 2024.1.27.)

U.S. DOS Office of Historian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the near east and Africa, volume V, Policy Statement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March 1, 195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1v05/d698>

wikipedia, Ethiopian National Defense Force, https://en.wikipedia.org/wiki/Ethiopian_National_Defense_Force(검색일: 2024.1.27.)

<Abstract>

Verifying the Historical Facts of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Jang Jae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controversial historical facts related to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There were four verification needs identified through previous studies: Ethiopia'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KIA(Killed In Actions) in the Kagnew Battalion, the results of the battle of the Kagnew Battalion, and the length and number of troops dispatched by the Ethiopian army. The research method applied for verification was based on a review of historical literature, and interview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mplementarily applied through field visits to Ethiopia. As a result of studying the four verification needs, first, the records of Ethiopia'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needed to be revised. Korean literature consistently explains Ethiopia's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the war with historical experience and enthusiasm in Ethiopia's collective security, but this was evaluated as a record that excluded realistic reasons that Ethiopia must consider at the time. Second, recent Korean literature records the results of the Kagnew Battalion's battle as 253 wins out of 253 battles, which needed to be revised. This is because there are cases of the Kagnew Battalion's battle that do not meet this standard even if the meaning of military victory is broadly interpreted. Third, if Korea and Ethiopia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KIA, the records of the number of Kagnew Battalion's KIA may differ. However,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number of KIA at the diplomatic level. Fourth, it is reasonable to organize Ethiopia's dispatch period until 1956 for the Kagnew Unit and 1965 for the Ethiopian liaison officers of the UNC. However, the source and evidence for the total number of troops dispatched by the Ethiopian army of 6,037 need to be further verified.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erms of verifying ambiguous or conflicting historical facts related to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can also be helpful for ROK–Ethiopia veterans' diplomacy.

Keywords: Ethiopia, Korean War, Kagnew battalion, Historical Facts